

우애  
나눔  
보은  
행운

흥과 정 가득

남원시 어린이동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제26회 흥부제가 ‘우애·나눔·보은·행운’을 주제로 4개 분야 21종목의 다양한 나눔, 체험과 대중성 높은 공연 등이 펼쳐지며,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흥을 즐기는 축제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남원시 아영면 성일지역과 인월면 성산리 지역은 흥부의 발원지로 이미 고증에서 확인된 곳으로, 이 지역에서는 지난 17일 제26회 흥부제의 성공적 개최와 흥부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고유제를 올렸으며, 3일간의 축제 프로그램은 다양한 공연과 경연행사 및 문화행사와 각종 연계행사가 진행되면서 관객들을 만족시켰다.

특히, 행진에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민들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교통대책과 안내 대책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 했으며, 이 중, 주차장에 대한 만족할 만한 안내가 남원 이미지 제고에 한몫했다는 평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 26회 흥부제는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해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만족한 축제가 되었다”며, “27회, 28회 흥부제는 보다 관심을 기울여 준비하는 등으로 더욱 만족할 축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흥부제 품바 명인전



아이들과 함께하는 유모차 행진.



흥부제 체험미당

▲개막식과 기념식

19일 오후 야외무대인 사랑의 광장에서의 개막식 및 기념식에서는 식전공연으로 남원시립국악단의 전통의 맥을 잇는 우리소리 향연이 펼쳐지며 관객들을 흥으로 몰입하게 했다.

또한 예년보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펼쳐진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놀이는 가을 밤 하늘을 수놓으면서 관객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였으며, 남진, 김용임, 박상철 등 유명가수들이 펼친 공연은 참석자 모두를 즐거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어 김동훈씨 등 4명의 시민에게 남원 최고 영예의 상인 남원 시민의 장을, 우애와 사랑의 흥부정신을 기리는 흥부가족상에는 4명의 자녀를 훌륭한 지역인재로 키우고 홀로된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김지수씨 가족이 수상했으며, 이날 기념식에는 시민의 장과 흥부가족상 수상자들이 함께 자리하며 개막퍼포먼스와 축하공연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공연 및 경연행사

이번 흥부제에서 관심을 받은 프로그램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개막 축하공연과 흥부놀이부락 한마당, 그리고 마지막 날 광장주차장에서 펼쳐진 ‘흥부가왕’이 꼽힌다.

20일 저녁 7시 ‘흥부놀이부락 한마당’에서는 한영애, 자전거 탄 풍경, 소리새 등의 가을밤 콘서트가 열려 7080 세대에게는 그 시절의 향수를, 20~30대에게는 가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21일 오후 2시에는 시민이 참여해 만든 ‘흥부가왕’ 경연은 흥부전이나 남원을 떠올리는 복면, 가면 등 개성있는 모습으로 넘치는 끼를 뽐내면서 모두를 즐겁게 했다.

특히, 20일 오후 광장 주차장에서 펼쳐진 품바 명인전에는 남녀노소 수많은 관객이 운집해 각설이의 해학 넘치는 농과 끼 있는 웃음재치로 모두를 즐거운 하루를 보내도록 했다.

개막식부터 관객들 흥으로 몰입

흥부놀이부락 한마당·흥부가왕 등

이번 축제 최대 관심사로 꼽아

품바 명인전도 관객들에 큰 인기

먹거리·즐길거리·볼거리 등 다채

이와 함께 국립민속국악원이 20일 오후 5시와 21일 저녁 6시 30분 두 차례 펼친 수준 높은 축하공연과 폐막공연은 남녀노소를 감동의 물결속으로 이끌었다.

특히, 남원의 대표적 전통문화인 읍면동 농악단의 ‘제26회 흥부놀이부락 한마당’과 국립민속국악원의 축하공연과 폐막공연, 제26회 금과 강도근 전국 관소리 대회 등은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체감하는 전통문화와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문화체험행사 및 연계행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 및 체험행사는 남원지역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많은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사진전시, 유모차 행진, 다문화 가족의 해외음식 맛보기, 흥부의 나눔정신을 실천하는 흥부사랑 떡 나눔 행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모아진 종소리 쌀로 현장에서 함께 떡을 만들고 맛보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전통회화, 국제도예캠프, 남원예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두를 만족하게 했다.

이밖에도 사랑의 광장에서는 어린이들이 풍만한 방문객을 위해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흥부놀이터와 예천예술단의 사자탈춤·서커스·마임 등 특색 있는 볼거리

가 펼쳐졌다.

▲기타 행사

사랑의 광장 옆 관광단지 주차장 흥부장터에서는 알뜰 장터와 막걸리·추어탕부스, 푸드트럭 등 풍성한 먹거리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알뜰장터에서는 아트마켓, 공예체험, 우리먹거리농산물, 다양한 수제품 및 남아있는 집안물건 싸게사는 곳 등이 마련되어 관심을 끌었다.

또한 20일 사랑의 광장무대에서는 남원지역 에어로빅 여성동호회의 경연대회가 펼쳐지며 자칭 무료해질 수 있는 무대를 흥미와 건강미로 채워주었다.

남원YWCA 등 여러 사회단체가 참여해 헌옷, 헌책 등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고파는 흥부 나눔 장터와 먹거리 장터, 푸드트럭에도 많은 시민들로 성황을 이루었으며, 판매수익금 10%는 관내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흥부의 나눔 정신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과 김진식 흥부제추진위원장

김진식 위원장은 축제에 대한 소감을 묻자 “많은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협력과 관심으로 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어 매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축제를 준비하며 책임감과 부담감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지만, 관계자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아쉬움 가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 흥부제는 형제애를 나타내는 축제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고심했으며, 모두가 만족할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는 평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환주 남원시장 역시 “이번 26회 흥부제의 성공은 시민들과 많은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나눔의 흥부정신을 계승·발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더불어 잘 사는 남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1,000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악경연대회



흥부사랑 떡 나눔



흥부가왕 경연